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 가뭄대응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에 250억 원 추가 지원
- 용수확보, 살수차 운영, 폭염 취약계층 예찰활동 등 현장대응에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26.8.6.,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따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가뭄·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특교세 357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에 총 60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 폭염대책비 300억 원(4.15.), 가뭄대책비 57억 5천만 원(8.3.)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뭄피해가 늘고 있으며,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며,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 등 폭염 대응에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지원된 재난특교세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가뭄·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극한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난특교세가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시설사무관	류해춘 (044-205-5125)

